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00~110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희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荒れ野の記憶と約束」

ポスト「併合100年」に関する在日大韓基督教会の宣教声明

在日大韓基督教会は、韓国が日本の武力による強制「併合」によって、帝国主義的な植民地支配のはじまる1910年に2年先駆ける1908年を、宣教の始まりとしている。韓民族の苦難の歴史にこのように先行する在日大韓基督教会の宣教の歴史の始まりの中に、われわれは、20世紀の帝国主義的植民地支配の嵐に晒された北東アジアにおける「神の宣教」(missio Dei)のみ業を覚えざるを得ない。神の宣教は、故国と故郷を追われ、ディアスポラ(離散)として流浪するいと小さき信仰の人々の群れを用いて、人の思いを超えた未来へのご計画の実現に備えられたのである。そして今こそ、在日大韓基督教会は、過去の苦難の歴史の中でディアスポラ教会としての在日朝鮮基督教会を誕生させ、導かれた神のご計画の成就をみる。この21世紀の現代に在日大韓基督教会は、新たな宣教の約束を与えられ、さらなる宣教の第2世紀へと遣わされ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韓国併合の歴史において、主イエス・キリストは、在日本朝鮮基督教会を通して故郷を奪われ、大日本帝国内部の低賃金労働力として苦難を強いられた人々に先回りして避けどころとなられた。そして主は、ディアスポラとして生きる人々の叫びを聞かれ、涙をぬぐい、彼・彼女らの天幕を支え、解放への希望に向かって導かれたのである。同時に、主は、苦難の中にあるディアスポラ・コリアンの宣教に取り組む在日本朝鮮基督教会の存在を通して、朝鮮の長老会と監理会の二つの教派の協力による宣教のご計画を実現された。それによって、1934年2月には「在日本朝鮮基督教会」が創立され、独立した組織教会となった。そして今日に至るまで、在日大韓基督教会は、合同教会としての歴史と伝統を、主に委ねられたタラントとされた。それによって、韓国や北米、日本及び豪州の諸教会、そして超教派団体に対して開かれた宣教協力関係が恵みとして与えられた。

しかしわれわれは、次の二つの歴史的な罪責告白と悔い改めの信仰から、これからの宣教の使命の委託を自覚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ずはじめに、天皇制国家の軍国主義の嵐の中で、「在日本」朝鮮基督教会は、1940年、屈辱的な形で日本基督教会に併合され、そして翌年には日本基督教団に統合され、独立教団としての道を断ち切られてしまった。軍国政府の政策による抗いがたい圧力のもとであったとはいえ、1940年1月に、「在日本」朝鮮基督教会は、臨時大会においてその合併を自ら受け入れていく決議をしてみた。さらに、戦時下において、神社参拝、宮城遥拝をはじめ、「在日本」朝鮮基督教会は、軍用機献納献金、戦勝祈禱会等を通して、戦争に加担してしまった。今もこの歴史を悔い改めの信仰をもって記憶しつつ、神の主権のもとにしっかりと立つ教会として、天皇制国家主義がもたらすあらゆる偶像崇拜、軍国主義、そしてそれに伴い引き起こされる少数者に対する民族差別に抗う預言者的な使命を担う者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視点から、在日大韓基督教会は、今日、日本国家の、在日外国人に対する、「テロ未然防止」の名を借りた復活指紋捺捺制度をはじめとする排他的な出入国管理政策に異議を唱え、この国が国籍にかかわらず誰もが互いに尊重し合い共生できる社会の構築を、重要な宣教の使命と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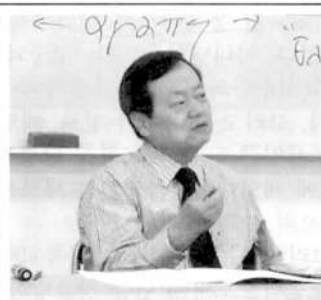
次に、1945年の解放(光復)後、強制統合されていた日本基督教団から脱退し、「在日本朝鮮基督教連合会」が主に残された民(イザヤ49:6)として再興された。しかし、1948年の第4回定期総会において、教団の名称は、「在日大韓基督教会」と改称された。当時、朝鮮半島における南北分断の政治的影響を免れえず、やむなくなされた改称とはいえ、われわれは、それ以後、ディアスポラの地においても38度線の南に政治的に引きこもる制約に甘んじる歴史を歩んできた。在日大韓基督教会は、このことを38度線の上に立たれる十字架の主を仰ぎながら、第二の悔い改めとして主に告白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罪責告白の信仰から、在日大韓基督教会は、このディアスポラの地において、朝鮮半島の南北平和統一の宣教に参加してきたが、さらに日本社会におけ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への排外主義的な憎悪を掻き立てる煽動による在日朝鮮人迫害に抗議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併合以来、在日コリアン・キリスト者によって継承されてきた在日大韓基督教会は、今や、過去25年間、新たに渡日してきたコリアン、中国朝鮮族、そしてさらに日本人、韓日の間に生まれ育った子どもたちを加えながら、多様な出自を抱えるキリストのひととなる体として歩んでいる。1945年8月の光復(解放)後、両断された国民国家として植民地時代後の歴史を歩んできた朝鮮半島の同胞と異なる形であるが、在日コリアンのディアスポラ社会は、併合以来この100年間、言うなれば、未だ終わらざる「併合」と植民地主義の問題を抱え続けている。それゆえにこそ、在日大韓基督教会は、「併合100年」の植民地主義の歴史の問題と対峙しながら、荒れ野の道を導かれる主イエス・キリストに従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主はいつも歴史の中で、ご自分のみ旨を担う小さな群れ(ルカ12:32)を呼び集め、用いられた。このことを覚え、在日大韓基督教会は、創造的少数者としての宣教の道を歩もうとするものである。同時に、このディアスポラの地において、また激動の道を歩む北東アジアの世界において宣教の天幕を広げ、礼拝の祭壇を築き、そして平和的共生のレホボト(広い／解放された)の井戸(創世記26章)を掘り続けていくのである。

この歩みに主の祝福が豊かにあらんことを! マラナタ、主よ、来たりませ!

2010年8月22日
在日大韓基督教会

注: 1934年2月、「在日本朝鮮基督教会」創立。1936年、日本基督教連盟への加入に際して、「在日本」が削除された。それ以降から解放までの名称を「在日本」朝鮮基督教会とした。



總會神学校 公開講座
定期集中講座 韓国에서 두 講師 청빙
총회신학교 정기집중강
의가 지난 7월 5일부터 8
일까지 실시되었다. 강사
로는 연세대학교 교수이며
한샘교회 담임인 이승훈목
사와 칼빈대학교 전부총장
이며 한울교회 담임인 김
이중훈목사는 고고학
을 전문으로 소포타미아
하엿기에 성경의 배경
사강의에서는 성경고
고학을 연구하고 이해
하는 방법, 즉 「고고
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성경의 해석방법과 접
근방법」들을 설명하면
강조하였다. 현재 연세대
교수를 겸하고 있지만, 목
회자로서 교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성경 배경사를 고
고학적으로 연구 집필하여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였
다.
김중훈목사는 한국성서
대학, 총신대학교신대학
원, 칼빈대학교에서 25년
간 교수로서 연임하면서 많
은 저서와 역서를 출판한
정도로 한국성서학회와 목회
자로서 교육에 많은 기여
를 하면서 열의와 정성을
쏟아 왔다.
그는 목회현장에서 말
씀만이 영혼을 살리고 성
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
서, 많은 말씀이 이 아니
라, 참 말씀이 필요하다
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목
회자는 원어의 올바른 해
석과 연구하는 자세가 가
장 중요한 일이라 지적했
다.
김교수는 「행함을 통한
믿음의 실천」이라는 제목
으로 야고보서 강해가의
통하여 참된 믿음에는 반
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함
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교
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는 원어를 해석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를 위해 특별
히 제작된 교재는 둘째 날
에 총회신학교 학생들에게
만과제로 주어졌으며, 엄
격한 평가도 받는 알찬 집
중강의였다.
(보고.. 박희환신학생)

강조하였다. 현재 연세대
교수를 겸하고 있지만, 목
회자로서 교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성경 배경사를 고
고학적으로 연구 집필하여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였
다.
김중훈목사는 한국성서
대학, 총신대학교신대학
원, 칼빈대학교에서 25년
간 교수로서 연임하면서 많
은 저서와 역서를 출판한
정도로 한국성서학회와 목회
자로서 교육에 많은 기여
를 하면서 열의와 정성을
쏟아 왔다.
그는 목회현장에서 말
씀만이 영혼을 살리고 성
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
서, 많은 말씀이 이 아니
라, 참 말씀이 필요하다
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목
회자는 원어의 올바른 해
석과 연구하는 자세가 가
장 중요한 일이라 지적했
다.
김교수는 「행함을 통한
믿음의 실천」이라는 제목
으로 야고보서 강해가의
통하여 참된 믿음에는 반
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함
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교
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는 원어를 해석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를 위해 특별
히 제작된 교재는 둘째 날
에 총회신학교 학생들에게
만과제로 주어졌으며, 엄
격한 평가도 받는 알찬 집
중강의였다.
(보고.. 박희환신학생)

人權主日指定献金 (9月5日)
主 예수 그리스도의 恩恵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教会와 家
庭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祈禱합니다. 우리 在日大韓基督教会는 在
日韓国人의 人權伸張을 爲하여 毎年 9月첫째主日을 人權主日로
定하고、社会委員會의 献身的인 活動을 爲한 献金을 實施함에 있
어 貴教會의 뜨거운 祈禱와 協力에 感謝드립니다.
今年에도 在日韓国人의 人權에 대한 関心を 가깝게 가짐으로 多
様な 出身 背景을 갖는 敎役者들이 宣敎使命을 잘 堪當하면서 社会
委員會가 人權을 위한 活動을 堪當하도록 많이 支援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年 8月16日
在日大韓基督教会 總會長 崔 榮 信
總幹事 洪 性 完

港国際法律事務所
横浜市西区北幸2-3-19 日総第8ビル4階
1人で悩まずに、ご相談下さい。
代表弁護士 (横浜弁護士会) 弁護士12名
玄 君 先 (横浜弁護士会) 東京大学法学部卒
港国際法律事務所 登録
まずはお気軽に 24時間受付
お問合せ下さい 0120-980-428
1) 企業法務
●M&A
●企業買収
●事業再生
2) 個人法務
●債務整理
●相続・離婚
●金融被害
横浜駅
西口
徒歩5分
ハマホールイース
そば
〒220-0004
横浜市西区北幸2-3-19
TEL:045-628-9311
FAX:045-311-8544
URL://www.minatolaw.biz/

不動産管理
アルカンシエル名駅
李 光 世
(名古屋教会 長老)
〒453-0013 名古屋市中村区亀島2-2-27
電話・FAX 052-451-7713
携 帯 090-3578-7571
E-mail:kwangse.lee@nifty.com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有限会社 三 愛
取締役社長 李 鍾 善
(名古屋教会 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 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황야의 기억과 약속”

포스트 “병합100년”에 관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선교성명

재일대한기독교회는 한국이 일본의 무력에 의한 강제 “병합”으로 인하여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는 1910년 보다 2년 앞선 1908년을 선교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 한민족의 고난의 역사에 이와 같이 선행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는 20세기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지배의 폭풍에 드러내어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역사(役事)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선교는 고국과 고향을 쫓겨나 디아스포라(이산)로써 유랑하는 지극히 작은 신앙의 사람들의 무리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각을 넘은 미래를 향한 계획의 실현으로 마련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재일대한기독교회는 과거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교회로서의 재일본조선기독교회를 탄생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본다. 이 21세기의 현대에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새로운 선교의 약속을 받아서, 더욱 더 선교의 제2세기에로 보내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병합의 역사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일본조선기독교회를 통하여, 앞질러 가 고향을 빼앗기고 대일본제국 내부의 저임금노동력으로써 고난을 강요당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 그리고 주께서는 디아스포라로서 사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눈물을 닦고 그들의 장막을 지탱하여 해방에로의 희망을 향하여 인도하셨던 것이다. 동시에, 주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선교에 몰두하는 재일본조선기독교회의 존재를 통하여 조선의 장로회와 감리회, 두 교파의 협력에 의한 선교의 계획을 실현하셨다. 그로 인하여 1934년 2월에는 “재일본조선기독교회”가 창립되어 독립된 조직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연합교회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주께로부터 맡기어진 달란트로 삼았다. 그리하여 한국이나 북미, 일본 및 호주의 교회, 그리고 초교파단체에 대하여 열린 선교협력관계가 은혜로 주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두가지 역사적인 죄책고백과 회개의 신앙으로부터, 이제부터의 선교 사명의 위탁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천황제국가의 군국정부의 정책에 의한 저항하기 어려운 압력 하에서 었다고는 하더라도, 1940년 1월에 “재일본”조선기독교회는 임시대회에서 합병을 스스로 받아 들이는 결의를 하였다. 더불어 “재일본”조선기독교회는 전신하에서 신사참배와 궁성유배를 비롯하여 군용기현납금, 전승기도회 등을 통하여 전쟁에 가담하였다. 지금도 이 역사를 신앙으로 회개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굳건히 서는 교회로서 천황제국가주의가 가져온 온갖 위상숭배, 군국주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으켜지는 소수자에 대한 민족차별에 항거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시점으로부터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오늘 일본국가의 재일외국인에 대한 “테러미연방지”의 이름을 빌린 부활지문난민제도를 비롯한 배타적인 출입국관리정책에 이의를 외치어, 이 나라가 국적을 불문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선교의 사명으로 삼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 1945년의 해방(광복) 후, 강제통합되어 있던 일본기독교단에서 탈퇴하여,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가 주께 남겨진 백성(사49:6)으로서 재흥되었다. 1948년 제4회정기총회에서 교단명칭은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로 개칭되었다. 당시,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남북분단의 정치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개칭이기는 해도, 우리는 그 후, 디아스포라의 땅에서도 38도선 이남에 정치적으로 들어앉은 역사를 걸어 왔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이를 38도선상에 세워지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제2의 회개로써 주께 고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죄책고백의 신앙으로부터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이 디아스포라의 땅에서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의 선교에 참여하여 왔지만, 나아가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배외주의적인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선동에 의한 재일조선인 박해에 항의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합병 이래, 재일코리안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계승되어 온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지금은 과거 25년간 새롭게 일본에 온 코리안, 중국조선족, 그리고 나아가 일본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태어나 성장한 아이들이 더해 지면서, 다양한 출생을 감싸 안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서 나아가고 있다. 1945년 8월의 광복(해방) 후, 양단되어진 국민국가로써 식민지시대 이후의 역사를 걸어 온 한반도의 동포와, 다른 형태이지만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는 병합이래 이 100년간, 말하자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병합”과 식민주의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그 때문에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병합100년”의 식민주의의 역사 문제와 대치하면서, 황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지 않으면 안된다. 주는 언제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감당하는 작은 무리(눅12:32)를 불러 모아서 들어 쓰셨다. 이점을 기억하며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창조적인 소수자로서의 선교의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디아스포라의 땅에서 또한 격동의 길을 걷는 동북아시아의 세계에서 선교의 장막을 펴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 평화적인 공생의 르호봇(넓은/해방된)의 우물(창26:22)을 파는 것이다. 이 걸음에 주의 축복이 풍족하게 임하기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2010년 8월 22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주: 1934년 2월: “재일본조선기독교회”창립. 1936년: 일본기독교연맹에 가입할 때, “재일본”이 삭제되었다. 그 이후의 명칭을 “재일본”조선기독교회라 하였다.

*번역판입니다.



関東地方教会学校
関西地方教会学校

連合夏季修練会開催

「노아에 대하여」主題로 6教会가 함께

관동지방교회 6개 교회, 東京日暮里 第一教会、ハシラン教会、多摩キリスト教会가 연합하여, 「노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지난 7월25일부터 27일까지千葉(鴨川青年の家)에서 각교회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88명이 참가하여 2010 교회연합하기수련회(연한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되었다. 지난 해에는 4개의 교회 연합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작년을 참고하여 지난 5월부터 여섯 교회가 연합으로 실시하기로 한 후, 각 교회의 교육자를 자원으로 준비하였다. 그중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은 8개(6+8명)로 나뉘어진 분단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각 분단 교육을 자원으로 준비하여, 또 한 금번 연한여름성경회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었다. 연합을 위한 준비의 어려움과 개교회 상황의 변화들이었다. 참가인원을 비롯하여 각자의 역할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실행위원들은 힘든 분사를 하였다. 독자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할 수 없는 미자립교회에게는 아주 소중한 연합의 정신을 심어 주었으며, 독자적인 개최가 가능한 자립교회는 독자적인 노후 자립교회는 독자적인 개최보다는 미자립 교회와 연합함으로써 함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실행위원회는 마지막 평가회까지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 (편집부)

西会 春の修養会を開催

琵琶湖畔に16名が集い交流

5月4・5日、琵琶湖トリートセンターにて、大阪・大津・京都・布師・西成教会から16名の青年・高校生が集まり、朴成均牧師(和歌山第二、全聖三牧師(布師)と共に青年会関西地区連合会春の修養会が開催された。開会礼拝では大阪教会の青年がピアノを、布師教会の青年がギターを演奏し、みんなで大賛美歌を歌い、参加者がひとつになつたところで、朴成均牧師が「わたしのもとに來なさい」(マタイ11章28節)という説教をした。夕食後、会長により、これまで歩んできた道、信仰観や「私と関西、つながる青年」という今年のテーマに至つた想いを語る発表があつた。次に、全員で「イエスはまことのぶどうの木」(ヨハネ15章1・17節)の聖書を読み、ひとりずつの箇所を朗読し、ひとりに残つた箇所を発表し、それについての想いを分かち合うことによつて、それぞれの考えや想い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た。



2日目は、朝食後、屋外の芝生の上で朝の礼拝をした後、ワークショップを行った。「愛・お金・名誉・正義・知識・健康」という6つの項目を自分が必要としている、大切に思っている順に順位をつけ、どうしてそのような順位付けをしたかを語り合った。開会礼拝では、朴成均牧師が「作り直す」(エレミヤ書18章4節)という説教を通して青年の可能性を教える力強いメッセージを送った。実に4年ぶりに開催する

たかを一対一で、グループで話し合うことによつて、それぞれの価値観やその基となる経験を話し合うことにより参加者のつながりを強めた。開会礼拝では、朴成均牧師が「作り直す」(エレミヤ書18章4節)という説教を通して青年の可能性を教える力強いメッセージを送った。実に4年ぶりに開催する

YMCA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 2006年4月25日、創立100周年を迎えました。

-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ホテル): 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サービス。10名様から220名様(50名様)も可能。
- ◆スペースワイホール: 22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最適
- ◆韓国文化(チャン・カヤ・舞踊)教室・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 ◆YMCAアジア語学院(日本語学校)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300	¥5,040
ツイン	¥11,550	¥9,240
トリプル	¥14,490	¥11,592

朝食¥200 カルピック、コムタン、ユッケジャン、韓定食、洋食(全メニューコーヒープリ)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TEL 03-3233-0611 FAX 03-3233-0633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府東成区中道3-14-15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福音新聞専用 E-mail案内
fukuinshinbun@kccj.jp
原稿締切日: 9月19日

한일 강제합병100년 한국·일본교회 공동성명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NCCJ)는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합병 100년을 맞이하여 지난 100년 동안 양국의 역사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국 교회는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참회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되돌아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1910년 일제는 무력으로 대한제국을 강제합병하여 식민지배 동안 한반도에서 여러 형태의 억압과 수탈을 일삼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의 주민들을 깊은 고통 속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 지배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분단되었고, 급기야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특수성을 누리며, 전후 복구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음을 주목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 제공국인 동시에 분단 상황의 수혜국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식민지 시대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자국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위한 명분으로 삼는 작금의 현실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교회는 그 동안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바람직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한국교회는 일본교회가 식민지배와 전쟁책임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죄와 고백을 이어온 역사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1967년 일본기독교단은 "지난 100년 간 국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교회가 그 죄에 함께 빠져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소홀히 했음을 참회"하는 "제2차대전하의 일본기독교단의 책임에 대한 고백"을 발표했다. 또한 1995년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NCCJ)는 의장성명 "전후50년"을 맞이하며 및 "일본 전쟁책임과 전쟁책임에 관한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기독교계에서 국회로의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또 대부분의 일본교회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해 죄와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일본교회는 이 고백을 통해 "새로운 천황제국가로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세계의 주라고 하는 교회의 본래의 고백에서 서서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한국/조선의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화해와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였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식민 치하에서 일제의 통치에 항거하여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민족적인 책임을 감당하고자 노력했던 당시 '조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고난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그러나 양국교회가 식민지 말기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하고, 그 결과로서 침략전쟁에 동조하게 된 죄와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양국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우리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는 과거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이러한 죄책고백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부단히 밝히고, 확인된 죄를 고백하며,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강제합병 100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양국 정부에 요구하며, 앞으로 이 모든 일이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첫째, 일본에 의한 100년 전의 강제합병은 위협과 무력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한국과 일본의 국회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원천 무효이고, 35년간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으며, 그 기간 중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에 대한 식민지 치하 법에 의한 처벌이 전적으로 '인도주의에 반하는 식민지 범죄'였음을 확인하고 결의할 것.

둘째, 일본정부는 식민지 35년 통치 동안 한반도에서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고 삶의 궁핍화를 가져 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간도,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살게 하는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할 것. 또한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에 살고 있는 이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주권을 보장하고, 민족적인 소수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

셋째, 식민지 시대 과거사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구체적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양국이 개인의 손해보상청구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을 개정할 것.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을 제정할 것. 구체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원폭, 강제 징용, 강제 징병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할 것. 이 권리 구제를 위하여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한반도식민지범죄에 관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이 일을 추진할 것.

넷째,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에 일본의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정부는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것. 특히 북일간 직접 대화를 진행하여 북일간 기본조약의 체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그리고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

다섯째, 한국정부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궁극적인 결과가 분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냉전적 정책을 버리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증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지향할 것.

여섯째,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공식·사적 행위를 규탄하며, 양국 정부가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우리는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 노선으로 회귀할 것인지 걱정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평화 지향의 국체를 확립하여 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정착, 증진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강제합병 100년을 맞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협력,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게 되기를 한일 양국 교회는 하나님께 간구 드린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0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訂 正

7월호 3면의 「난코전도소 개척」이란 기사중에 일부 내용이 빠졌으므로 27주째부터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이 전도소는 지난 2005년부터 남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大阪北部教会聖徒들을 중심으로 不定期적으로 礼拝을 하였던 곳이다. 그러다가今年 1月 公同議會에서 10区域(南港地域을 전도所로 하자는提案)이決議되어 禮拝을 맺게 된 것이다」

(조영철 목사)

* 8월호 1면의 開米記事で「平和メッセ」とあるタイトルを「平和メッセ2010」に訂正いたします。

全協夏季修養会開催

「キリスト者の愛の実践」テーマに

8月11、14日、第61回全国青年夏季修養会が、長野県野尻湖レイクハウスで行われた。全国の各教会から65名の青年が主として集



められ、今年も素晴らしい出会いが生まれた。今年は、金澤市代表委員(川崎教会)のもと、「キリスト者の愛の実践」というテーマを共有し、私たちキリスト者の切実な祈りの延長線上にある「行いの尊さについて学ぶ機会」となった。1日目は、全協発題があり、代表委員の自史を通してテーマについて考える時間を持った。質疑ト教がどのような苦難を経験し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に思いを寄せる時間となった。

3日目は聖書プログラムとして、同世代で集まって聖書を聞きながら「愛」に関するワークショップを行い、次に各世代で聖書について互いに意見を交換する時間では、若い青年にとつて新鮮な時間、とても楽し

い学びの時間となった。夜には例年通りキャンプファイヤーとスタンツ大会を行った。

韓日交流会開く

18教会が参加

京東地区

毎年、日本基督教団東京教区の東支区と支区内にある在日大韓基督教教会とは交流をもっているが、今年は6月27日午後2時から会場を日基督教団西新井教会において開催された。教団側からは13教会が、在日大韓側からは5教会(西新井、新井)の司会で、曹泳石牧師(東京神学)が、笛を吹けば踊る(マタイ11:16



第二部は黄貞順牧師(黎明、国府田祐)の司会で、曹泳石牧師(東京神学)が、笛を吹けば踊る(マタイ11:16

「17」の説教をして日本に人牧師(日基督教団荒川)の司会に参加した各教会の紹介をしながら、感想を交わし、語り合った。伝道の難し

6月20日、西宮教会にて金承熙牧師の委任式が執り行われた。権寧国牧師(神戸)の司会のもと、梁榮友(関西学院大)の祈禱、金鍾(関西学院大)の聖書朗読、権寧国牧師(明石)の聖書朗読、西宮教会聖歌隊の讃美があ

6月20日、西宮教会にて金承熙牧師の委任式が執り行われた。権寧国牧師(神戸)の司会のもと、梁榮友(関西学院大)の祈禱、金鍾(関西学院大)の聖書朗読、権寧国牧師(明石)の聖書朗読、西宮教会聖歌隊の讃美があ

金承熙牧師委任式挙る

西宮教会に10年ぶりに担任牧師赴任

6月20日、西宮教会にて金承熙牧師の委任式が執り行われた。権寧国牧師(神戸)の司会のもと、梁榮友(関西学院大)の祈禱、金鍾(関西学院大)の聖書朗読、権寧国牧師(明石)の聖書朗読、西宮教会聖歌隊の讃美があ



(報告:金鍾権牧師)